재난지원금 사용 대형마트 'X', 입점한 약국은 'O'

동네 식당 학원 병원 약국 슈퍼 빵집 O
프랜차이즈 O, 직영점은 사는 지역만
중기제품 파는 GS슈퍼-노브랜드 등은 O
배달앱 사용 X, 배달원 직접 결제만 O
영화도 사용 O… 직접 현장 결제해야

사진=보건복지부

재난지원금 사용처

정부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해당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업장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사용할 수 있고, 어디서는 사용할 수 없는지 알아보자.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에 걸맞게 동네 음식점, 빵집, 카페 등에서도 재난지원금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내부에 위치한 임대 매장이나 식당에서도 자리만 빌린 경우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이더라도 가맹점은 전국 모든 매장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직영점의 경우에는 본사가 주민등록 지자체 내에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사용 가능하다.

이를테면 본사가 서울에 있는 스타벅스의 경우 서울시민은 재난지원금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 있지만 경기도 등 그 밖의 시도 주민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등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농협 하나로마트, 동네 식자재마트와 지하상가 등이다.

백화점(신세계, 롯데, 현대, NC백화점, AK플라자 등), 대형마트(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 롯데슈퍼 등), 대형전자판매점(삼성 디지털 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LG베스트샵), 쿠팡, G마켓, 네이버쇼핑 같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단,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약국, 미용실, 식당에선 재난지원금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제품이 대부분인 GS더프레시(구 GS수퍼마켓), 노브랜드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배달 앱 이용도 가능하다. 단, 앱 결제는 안된다. 배달원에게 직접 결제는 가능하다.

지자체 내의 모든 영화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매 시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지만 현장 결제 시에는 영화 관람 및 매점 이용도 가능하다.

미용업종으로 등록된 미용실과 네일아트숍 등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스포츠 마사지, 피부관리실 등 위생업종 대면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사용제한업종으로 지정돼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올리브영, 롭스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본사가 서울에 위치했기 때문에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서점이나 학원, 교습소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4대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대중교통, 이동통신 등 자동납부 결제건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골프장, 노래방, 유흥업소, 카지노, 성인용품점, 면세점, 귀금속 업소 등에서도 사용 불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알고 싶다면 카드사 앱을 이용하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13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가맹점을 지도에 표시해주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맹점 MAP' 서비스를 개시했다. 삼성카드 역시 '복지부 국가재난바우처 가맹점 찾기' 서비스를 추리했다. 해당 서비스는 삼성카드 모바일 앱이나 PC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하면 된다. 신한카드·BC카드도 가맹점 지도를 출시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며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돼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기업형슈퍼 중 GS프레시만 된다니…

롯데슈퍼-홈플익스프레스는 X
대기업 안된다며 이케아는 허용
재난지원금 사용처 형평성 논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재난지원금 신청이 본격화된 지난 13일부터 논란이 빚어지는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논란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이다. 정부가 SSM 중 유일하게 GS프레시에서만 결제를 허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것. 실제 GS프레시의 경쟁사인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은 모두 재난지원금의 결제가 불가능하다.

통상 대기업의 유통 채널에서는 가맹점 외에 모두 재난지원금의 결제를 받지 않고 있다. 백화점은 물론 대형마트나 SSM이 모두 금지된 것 역시 마찬가지다. 가맹점과 직영점을 가리지 않고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GS프레시의 사례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GS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 측은 "SSM 중에서 GS프레시가 가장 신선식품 판매가 많고 가맹점 비중이 50%에 달해 재난지원금의 결제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는 저소득층의 구매처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이같은 GS리테일의 설명에 반발한다.

SSM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 SSM도 가맹점이 있고 신선식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GS프레시만 재난지원금을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실상 정부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유통업계가 이처럼 반발하는 배경 중 하나는 GS프레시가 재난지원금 사용처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에서 금지해둔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울렛 외의 별개의 유통채널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사용이 가능한 구멍이 적지 않게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가구유통 공룡으로 꼽히는 이케아 역시 해당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이케아는 광명점, 고양점, 기흥점이 모두 면적 5만㎡를 넘나드는 대규모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기에서는 가구와 인테리어부터 식품과 생필품을 다량으로 판매하고 있어 사실상 복합쇼핑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케아 광명점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지만 바로 옆에서 한 지붕을 쓰고 있는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 외에도 대기업 유통사가 운영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에서 빠진 특수 매장이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마트 노브랜드의 경우는 직영, 가맹점을 가리지 않고 재난지원금의 결제가 가능하다. 대기업인 이마트가 운영하는 브랜드지만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SSM과도 다른 소규모 자체브랜드(PL) 중심 매점이라는 점이 주효했다.

이마트 일렉트로마트에서 재난지원금이 결제되는 사례도 있다. 일렉트로마트는 통상 이마트 내 가전매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스타필드고양 일렉트로마트 지점은 이마트 없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재난지원금 결제가 막히는 '대형마트'에서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의 긴급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용처를 무턱대고 제한하기 보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적어도 대기업 유통에 사용 금지라는 원칙이라도 공평하게 적용돼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강필성 기자 feel@newdailybiz.co.kr

지역상권 살리자더니 스벅도 된다네

대기업 포함, 지역 살리기 효과 반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얼어붙은 소비경제를 살리고 지역 상인들을 돕자는 것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의 핵심이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가전전문점 등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민들은 재난지원금을 서울시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스타벅스는 100% 직영체제로 본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100% 직영 체제일 경우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국 기준 1000개를 넘어선 스타벅스의 서울 매장 수는 절반가량인 512개. 경기·인천(352개), 대전·충청(111개), 부산·경남(159개), 대구·경북(107개), 광주·전남(73개) 등과 비교해도 독보적으로 많은 숫자다.

스타벅스는 우리나라 재계순위 11위 수준인 신세계그룹이 지분 50%를 가지고 운영 중인 국내 커피브랜드 1위다. 이 스타벅스가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연 매출 10억 이하 소규모 매장'과 같은 규모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스타벅스와 이디야는 전 매장에서 사용가능하다. 하지만 상황은 다르다.

스타벅스는 100% 직영점이고 이디야는 대부분이 가맹점이다. 전국 300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이디야는 직영점 10곳을 제외하고, 모두 가맹점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랄라블라, 매일유업이 운영하는 폴 바셋 역시 서울지역 전 매장 사용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기업 유통업체를 규제하면서 외식 매장 등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례없는 극단적 통화정책을 통한 지역경기 부양을 목표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컸다. 그러나 '오락가락' 지침은 반쪽짜리 기준이 됐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외식 매장의 경우 대부분 본사와 직영점이 서울에 몰려 있어 사실상 많은 매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재난 지원금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임소현 기자 shlim@newdailybiz.co.kr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THE GREATEST BOXER SHOWING OFF HIS RIGHT HOOK SHOT ON A LEICA

SOFORT INSTANT CAMERA. THE LEICA MADE FOR FUN.
LEICA STORE BOSTON 74 ARLINGTON ST

int & Publishing Bronze Lion Campaign
Title: ALI 무하마드 알리
Client: LEICA STORE BOSTON 라이카 스토어 보스턴
Agency: ARNOLD WORLDWIDE, Boston
Product: CAMERAS 카메라
Copy: The Greatest Boxer Showing Off His Right Hook Shot on a LEICA
오른쪽 훅을 보여주는 위대한 복서
라이카 카메라로 담다